내 차로 F1 서킷 달린다…영암서 14·15일 '모터 페스티벌'

국제자동차경주장…하루 200대 선착순

참가비 2만·10만원…어린이 무료 체험

"누구나 찾는 모터레저 공간으로 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오는 14·1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일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서킷을 달리는 '2026 전남광주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일반 시민에게 서킷 주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누구나 즐기는 모터레저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평소 운전하는 일반 승용차로도 서킷 주행을 체험할 수 있다. 별도의 서킷 라이선스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운전자는 드라이버 브리핑과 안전교육을 마쳐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도 추가 요금 없이 동승할 수 있다.

서킷 주행 참가권은 기본형 2만원, 참여형 10만원이다. 기본형은 드라이빙 스쿨(이론), 피트 포토존, 서킷 주행으로 구성되며 참여형에는 레이싱 결승선 통과 체험과 타겟타임 챌린지 등이 추가된다.

참가권은 차량 1대당 하루 기준으로 판매하며 하루 200대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매는 네이버 쇼핑에서 '전남광주 모터페스티벌'을 검색하면 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주행, 교육, 전시 등 3개 분야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행 분야에서는 ▲레이싱 결승선 통과 체험 ▲타겟타임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드라이빙 스쿨 ▲자동차 랠리 주행 ▲대학생 자작차 주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 분야는 ▲그리드워크 ▲피트 포토존으로 구성된다. 그리드워크는 출발선에 도열한 레이싱 차량을 가까이에서 관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트 포토존에서는 차량 정비 공간인 피트에 참가자의 차량을 배치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료 체험도 마련된다. F1 풀코스를 버스로 둘러보는 '서킷 버스투어'와 안전요원이 운전하는 '어린이 카트 체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카트 드리프트' 체험도 운영한다. 어린이 전용 에어바운스 놀이공간과 푸드트럭, KIC 굿즈샵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박숙희 관광산업과장은 "전문 선수와 마니아 중심의 모터스포츠를 일반 시민과 가족이 함께 즐기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누구나 찾고 즐기는 모터레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제37회 광주권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천물빛노닐터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법 경연을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남광주시, 겨울철 재난 대비 '안전감찰' 착수

대설·한파·고병원성 AI 등 6개 분야

내년 1월까지 27개 시·구·군 등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동절기 대설·한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해넘이·해돋이 인파 밀집 등 겨울철 재난 취약 시기에 대비해 6개 분야 '기획감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안전의 빈틈은 줄이고, 시민의 안심은 더하고'를 목표로 재난 취약시기별 대응체계의 이행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까지 27개 시·구·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찰한다.

먼저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지역의 대응·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을 개선한다.

동절기 야생철새 유입에 따른 고병원성AI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관리계획과 상황실 운영 등 방역 비상대응체계를 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상시 예찰한다.

연말 해넘이·해돋이 행사로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에 대비해 시·구·군의 안전관리계획과 교통대책 수립 등 인파관리 실태도 현장 예찰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교통안전지수 교통약자 부문 D등급 이하인 9개 시·군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교통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감찰한다.

상·하수도 관로 노후화와 통신·전기·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복합화로 커지는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도로 굴착 및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의 안전관리 실태도 살핀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가운데서는 광주환경공단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노후·대형화된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한다.

전남광주시는 기획감찰과 수시예찰을 병행하며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은 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시, AI 고위험 16개 시·군 방역점검

〈조류인플루엔자〉

내일까지 거점소독시설·철새도래지 등

농장 방역관리·차단방역 이행도 살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만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3일간 AI 고위험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식품국 6개 부서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나주·장흥·강진·영암·무안·함평 등 AI 고위험 관리지역 16개 시·군을 비롯해 거점소독시설과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군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상황회의 개최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 지정 및 현장 방문 등 농장별 방역관리 실태다. 소독시설 설치·운영과 소독차량 운영 현황,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관리 이행 여부도 살핀다.

특히 철새도래지의 차량 출입 통제와 통제구간 안내 등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손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I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농가와 시·군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은 방역대책본부 운영과 농장별 예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농가도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보건환경硏 "광양 매실 항암 보조 가능성 확인"

추출물, 흑색종 암세포 사멸 촉진

세포실험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광양 매실 추출물을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흑색종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면서 정상 피부세포의 생존율은 유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10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몰리큘스(Molecules)'에 게재됐다.

연구원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진행한 연구에서는 광양 매실 추출물의 유효성분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자 결합 예측과 세포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매실에 함유된 클로로겐산 등 폴리페놀과 구연산 등 유기산 성분이 암세포 사멸과 항산화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실 추출물과 항암제를 함께 처리한 세포실험에서는 흑색종 암세포의 사멸이 증가한 반면 정상 피부세포의 생존율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도 관찰됐다.

안양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국제학술지 게재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매실이 항암 보조제 등 고부가가치 천연물 의약·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